

학점과 역량 사이

나 종 민
국민대학교 교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늘 변화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융합적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양성에 대학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 시선이 팽배해져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내 배움의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대학생활과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강화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성취수준은 학점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점과는 다른 별도의 잠재능력이 학생들 이면에 존재하는가? 그렇다

면 수업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어지고 있는 평가방식은 표준참조평가(상대평가)와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지향평가는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강화시키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 향상과 학업결과(학점)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시킨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그렇다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학생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특

정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현재 주어진 조건에 수공하여 어쩔 수 없이 특정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취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른 상대적 서열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발전시키기보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당면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성적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3·4학년들은 학점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 수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1·2학년 수업을 수강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높은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 내의 개인차와 상대적 위치를 변별하기 위한 이러한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정의적·윤리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학점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온갖 술수(커닝, 문제유출 등)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개별 또는 조별활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과제를 그대로 표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탐구정신과 내재적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 또한 수업의 특성에 따라 현재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방식은 무분별한 학점 남발로 인해 학점이 실제로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는가라는 적절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변별력의 부재로 부풀려진 학점

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똑같이 높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전체가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평가방식을 채택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편승하여 쉽게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란 배움의 공간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가방식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 사용되어지는 평가방식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방식들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막연하고 성취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취 가능한 학습목표를 수업에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제시된 목표가 성취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취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평가방식과 기준이 교수 고유의 영역이라고 한정짓기 보다는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 학생들에게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수업에서 평가지표(수업참여도, 발표, 보고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평가결과 반영비율 등)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과 교수의 생각이 서로 달라 평가결과에 대해 교수와 학생 간 불신의

이슈진단 및 분석

벽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발표의 횟수에 따른 점수부여, 토의참여 횟수에 따른 점수부여 등과 같이 평가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도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평가는 단순히 학생들의 성취수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목표에 학생 개개인이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대학 수업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중간·기말시험만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횟수의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준다면 교수와 학생 모두 만족하는 평가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각 대학과 전공 교과목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각 단대별, 전공별, 교과별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큰 틀과 기준을 제시하고 각 교과목 담당자에게 일정 부분 자율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진다면 같은 전공 또는 교과목, 유사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은 수업을 수강한 시기, 수업을 수강한 학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취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체제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란 공간은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고 생각의 힘을 키워 수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있는 것들을 대학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나종민 국민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평가·측정·통계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오스틴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심리측정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Efficiency of selecting important variables for longitudinal data”, “Evaluating school performance using Bayesian hyper-parameter estimation method”,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와 지역사회 연계”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문항반응이론, 프로그램평가 등이다.